

# 향토사학자 내고장 역사 밝히기 활발

## 문헌 사료 유적 유물 발굴의 '밝은 눈'

### 문화단체·동호회등과 공동 연구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신라, 백제, 가야, 중원문화권 등 문화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과 동호회, 향토사학자들의 활동현황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의 10대 유적으로 선정된 만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 부근 신라문화권의 향토사 연구현황을 먼저 알아보면, 지방 향토사 연구가로 유명한 윤경렬씨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일) 고문이기도 한 윤씨는 <경주남산 고적순례>, <신라이야기>, <신라의 아름다움>, <경주남산> 등의 저서를 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경우에는 경주 문화발전과 81개의 불상과 61기의 석탑, 115곳의 절터가 있는 경주남산 보존을 위해 애쓰는 신라문화동인회(회장 김태중)나 부처님마음(총장 도문), '삼국사서'를 찾아다니는(회장 고복우) 등과 같은 애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별로 없고 거의 직장인들이라 전문적 연구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자기 고장의 뿌리를 밝히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같은 지방문화단체와 향토사학자들은

향토사 연구 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제문화권인 충남의 경우 지난 64년에 발족한 백제사적연구회를 비롯, 천안향토문화연구회, 당진향토문화연구회,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등 거의 군 단위로 향토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해 89년에는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들 향토사학회는 <향토연구>, <백제사학>, <충진문화>, <백제사학> 등의 연구지를 펴내고 있다.

최근 부산·김해·함안·양산·합천 등 가야문화권에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

해 김해 대성동, 양동리의 발굴조사로 인해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은 허구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입증된 것은 가야권 향토사학자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영택(부산교육원 교육연구사)씨가 수년간의 답사 끝에 찾아낸 범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가야권인 영남지방에는 경남 24원(院), 대구·경북에 30원의 답사 끝에 찾아낸 범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가야권인 영남지방에는 경남 24원(院), 대구·경북에 30원의 답사 끝에 찾아낸 범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가야권인 영남지방에는 경남 24원(院), 대구·경북에 30원의 답사 끝에 찾아낸 범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가야권인 영남지방에는 경남 24원(院), 대구·경북에 30원의 답사 끝에 찾아낸 범어사 경계선 표시 석표도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책정한 충북, 경기도 이천군, 강원도 원주·영월군, 경북 문경·영주·봉화·안동·상주군등을 포함하는 중원문화권에도 다양한 연구회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주의 예성동호회, 육천의 관성동호회, 재천의 내재문화연구회, 진천의 상산고적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중 예성동호회는 79년 봄에 중원고구려비(국보 205호)를 발견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예성동호회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 확인한 것만 해도

예성동호회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 확인한 것만 해도

예성동호회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 확인한 것만 해도

예성동호회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 확인한 것만 해도

음성군 소이면의 미타사 마애불 발견(1978), 중원군 가곡면의 봉황리 마애불상군 발견(1978), 중원군 신내면의 승선사지 확인(1981), 단양군 영춘면의 비마라사지 발견(1982) 등이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의 전통과 역사를 밝히고 문화재 보호에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또 향토사학자들은 지방에 산재한 사료와 구전을 수집하고 연구 보존함으로써 전통사학파는 다소 어긋나는 주장을 제기, 연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향토사학자로는 경주의 윤경렬, 김해의 이병태, 공주의 윤여현, 충주의 김현길, 춘천의 원영환, 대구의 김택규, 광주·김정호, 청주의 박상일, 부산의 주영택 등이 꼽히고 있다.

(김재경 기자)

### 「한산사지」 복원 호소

#### 삼척 향토사학계

삼척군 도계읍 흥진리 석곡도계광암소 흥진경 뒷산에서 3백여년간 방치돼 온 「한산사지」를 보존·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향토사학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63년 발간된 「진주사」 등에 따르면 고려때 창건된 한산사는 조선중엽인 1636년 산불로 소실됐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한 차례도 증진되지 않고 방치돼 왔다.

그러나 산중턱을 평경하게 절토해 낸 한산사지는 4천5백여평 규모에서 현지를 확인한 향토사학자들로부터 복원 등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부처였는데 내가 되었다”의 뜻은

문 옛 선사사 이르기까지 “처음에 나였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처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었다”라 하였습니까. 어떤 뜻인지요? (서울 양천구 북동·박창환)

답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부처입니다. 그대로 부처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를 구해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하니 그대로 부처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부처 아닌 부처, 자유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고 있다가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 경계를 보는 주체가 있습니까

문 한 해설서를 보니까 깨달음의 경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경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 하였습니까. 그 말은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어떤 경계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양천구 북동·최도성)

답 물 맛을 알려면 직접 먹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한 잔 먹어본 사람이나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이상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뿐만,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만 해나 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헛되게 됩니다. 먹어보지 않고 물 맛이 어떻더라 하고 말한다면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물을 마셔보고 ‘아 이 물 참 시원하다’ 할 때 그 물 한 바가지가 약사보살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 주인공에 놓는게 잘 안돼요

문 어린 자식을 데리고 남편없이 살려다가 무척 힘이 듭니다. 스님께 서 주인공에 일체를 놓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놓아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주교민)

답 일체를 맡겨 놓고 죽어도 좋다는 공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놓는다고 하면서 살려두고 놓으니까 결과를 탓하게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려고 주인공에 다 놓으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했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믿듯 철철같이 믿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 생기겠지 하며 살고자 하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눈 뜨고 삼년을 쫓아주어, 자 거라 하였습니까.

### 나무를 베도 살생이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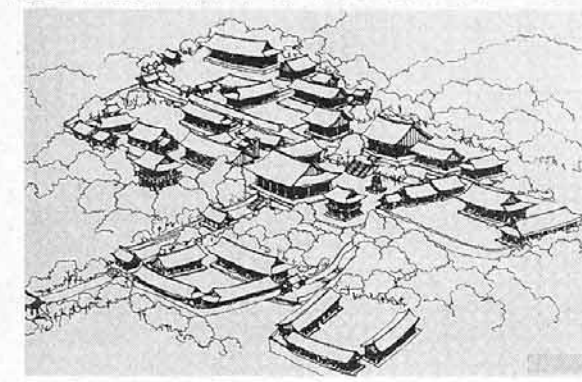
문 어떤 공사를 하느라고 나무를 베려고 베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어내면서 이것도 살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도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릉시 죽전동·이종환)

답 소나 돼지나 사람이거나 나무들이나 다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원수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이 되겠지요. 남의 것 돈 안내고 가져오면 도둑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관하라 하고 알려주는 것은 그럴 경우 쉽게 말해 공동분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기 얘기하는 주인공이란 개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포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가운데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범어사의 본래 규모를 알 수 있는 표지석이 향토사학계에 의해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범어사 전경 스케치.

# 범어사 본래규모 밝혀냈다

## 향토사가 주영택씨 고려때 세운 석표 발견

향토사학자 주영택씨(부산교육원 교육연구사·57)가 수년간의 답사 끝에 범어사의 토지경계를 나타내는 3기의 석표(石表)를 발견해 범어사의 정확한 사찰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견된 석표의 위치는 현재 범어사에 소장돼 있는 「선학대본산 범어사 전경도」에 나타나고 있는 각 방위의 경계와도 일치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범어사 전경도의 각 방위별 경계는 서쪽은 고당봉, 남쪽은 원효봉 아래, 북쪽은 계명봉, 동쪽은 금정중학교 옆산으로 표시해 있다.

사찰의 석표는 고려시대 호부(戶部)에서 세금징수를 위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에 세운 표지물이다. 당시 전국 각 사찰에서 석표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풍도사에서 고려 성종 2년(1085)에 호부의 명을 받아 12군데의 석표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 양산군 하북면에 있는 국장생 석표는 보물 제74호로 지정돼 있다. 범어사에서 발견된 석표는 고당봉과 원효봉 근처에서 3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로써 범어사의 경계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주씨는 3개의 석표외에도 「범어사 축약실측 도형서」를 새로 발견해 범어사의 규모를 현대적인 치수로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한 측량사가 1905년

에 기록한 이 도형서에는 산림면적이 1백45만9천8백46평, 본사경계가 4천9백52평 등 범어사의 총면적이 1백49만3천1백42평으로 나타나 있다.

### 「신라왕경연구」 학술발표

####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지난 9, 10일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 선재미술관에서 「신라왕경연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효성여대 최광식교수의 「신라 왕경(王京)의 보존과정」 등 모두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산중法食을 가정 식단으로”

## 선재스님 「사찰 음식문화 연구」서 주장



선재스님

부처님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이 시대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교음식연구회 선재스님은 지난 12일 광명선원에서 스님의 중앙승가대 졸업논문인 「불교복지증진을 위한 사찰 음식문화 연구」를 주제로 전통사찰 음식 강연회를 열었다.

선재스님은 “간혹 스님들 중에 심장병, 당뇨병, 암 등 성인병이 있음을 보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수행을 잘했던 부처님 당시 승려의 식생활과 과거 우리 스님들이 섭생했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먹는 법 등은 수행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잘것 없는 하나의 발우(鉢盂)도 법담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한 부처님 당시의 식생활 문화와 우리나라 음식문화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찰 음식문화는 이 시대에 교육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

선재스님은 “인스턴트식품 안먹기와 인공조미료를 먹지 않는 작은 실천이 사찰과 현대인들의 주방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무공해 채소와 자연식품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저장식품공장, 채식식당 운영과 사찰음식문화 강좌 등을 실행해 사찰음식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교 성지순례 레슬

##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네팔 순례 14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내무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권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라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권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마강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권 동참금: ₩ 2,190,000 (신청금 포함, 여권인자대 별도)  
권 신청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b>태국 5일</b>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 14, 21, 28 1/4, 11, 18, 25	<b>대만 5일</b>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 15, 22, 29 1/5, 12, 19, 26

<b>태국(파타야) 5일</b> ₩ 685,000 12월 17, 18, 24, 25, 28, 29, 30, 31 1월 7, 8, 14, 15, 21, 22, 28, 29	<b>미국 서부 버스 7일</b> ₩ 799,000 12월 19, 16, 23, 30 1월 6, 13, 20, 27
<b>대만(화련) 4일</b> ₩ 535,000 12월 18, 21, 25, 30 1월 1, 4, 8, 11, 15, 18, 22, 25, 29	<b>중남미 역사탐방 15일</b> ₩ 3,990,000 12월 22일 1월 5, 19
<b>마닐라 4일</b> ₩ 625,000 12월 17, 24, 31 1월 7, 14, 21, 28	<b>중남미 일주 20일</b> ₩ 4,980,000 12월 25일 1월 8, 29
<b>홍콩·마카오 4일</b> ₩ 545,000 12월 16, 23, 30 1월 6, 13, 20, 27	<b>유럽 5개국 10일</b> ₩ 1,940,000 12월 22, 29 1월 5, 12, 19, 26
<b>동남아 3국 5일</b> ₩ 699,000 12월 17, 21, 24, 28, 31 1월 4, 7, 11, 14, 18, 21, 25, 28	<b>유럽 6개국 11일</b> ₩ 2,140,000 12월 18, 25 1월 1, 8, 15, 22, 29
<b>홍콩(하위)·방콕·싱가폴 8일</b> ₩ 995,000 12월 18, 25 1월 1, 8, 15, 22, 29	<b>유럽 8개국 버스 13일</b> ₩ 2,140,000 12월 17, 24, 31 1월 7, 14, 21, 28
<b>방콕·싱가폴 6일</b> ₩ 795,000 12월 20, 22, 27, 29 1월 3, 5, 10, 12, 17, 19, 24, 28, 31	<b>오르코스테인포투투 10일</b> ₩ 2,290,000 12월 22, 29 1월 5, 12, 19, 26
<b>동경·하코네 4일</b> ₩ 945,000 12월 22, 29 1월 5, 12, 19, 26	<b>사이판 4일</b> ₩ 645,000 12월 18, 22, 25, 29 1월 1, 5, 8, 12, 15, 19, 22, 26, 29
<b>일본 일주 5일</b> ₩ 1,235,000 12월 20, 27 1월 3, 10, 17, 24	<b>괌 4일</b> ₩ 645,000 12월 18, 22, 25, 29 1월 1, 5, 8, 12, 15, 19, 22, 26, 29
<b>일본(후쿠 및 규슈) 6일</b> ₩ 1,345,000 12월 20, 27 1월 3, 10, 17, 24, 31	<b>시드니·골드코스트 5일</b> ₩ 985,000 12월 18, 25 1월 1, 8, 15, 22, 29
<b>하와이 5일</b> ₩ 749,000 12월 17, 21, 22, 24, 28, 29, 31 1월 4, 5, 7, 11, 12, 14, 18, 19, 21, 25	<b>호주·뉴질랜드 8일</b> ₩ 1,545,000 12월 17, 18, 20, 22, 24, 25, 27, 29, 31 1월 1, 3, 5, 7, 8, 10, 12, 14, 15, 17, 19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태관광 광 국의 여행업 제817호  
지회는 이익금의 일부 불우 이웃돕기금에 사용됩니다. ☎ 732-3200 (대)